

Dubai유, 23.48달러로 약세!

쿠르드족 키르쿠크 점령 소식 ... 나이지리아 산유량도 회복

국제유가가 쿠르드족의 키르쿠크 점령과 나이지리아의 산유량 회복 소식에 따라 약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03년 4월10일 현지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격은 배럴당 27.47달러로 전날보다 1.36달러나 하락했다. 2002년 12월9일 27.28달러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그러나 북해산 Brent유 현물은 0.16달러 오른 25.02달러에 거래됐다.

중동산 Dubai유 현물가격도 23.48달러로 전날보다 0.16달러 상승했지만, 10일 이동평균 가격은 23.75달러로 0.10달러 낮아졌다.

석유공사는 쿠르드족이 키르쿠크 지역을 점령하고 나이지리아의 석유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약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3월 초 30달러대로 치솟았던 Dubai유의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23달러대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해 미국-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 석유 수입부과금을 원래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Journal 2003/04/14>